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중심으로

이기쁨 · 지상훈*

2021년 8월 비정규직은 전년동월대비 규모와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크게 증가했고, 비정규직 증가분의 절반이 근속기간 1년 이내인 신규 입직자다.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증가가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했고, 특히 민간 부문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임시직 형태로 신규 채용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조건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나아지는 모습이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증가하였고, 근로시간은 정규직과 비슷하게 소폭 감소하였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도 급증하였고, 정규직보다는 더디지만 비정규직에서도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의 활용이 늘어났다.

I. 머리말

이 글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규모와 구성, 비정규직 세부 근로형태별 근로조건 변화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본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나 2021년 들어 경기는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소를 지속하다 2021년 3월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경기 회복과 함께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이용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및 근로조건이 전년에 비해 나아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 이기쁨=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ppeum@kli.re.kr),

지상훈=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anghoonjee@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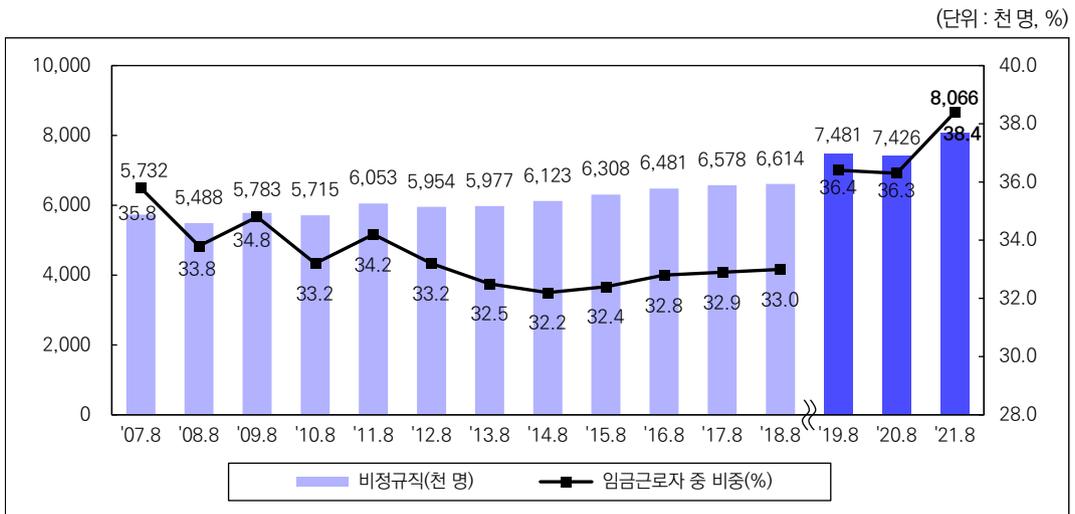
II. 2021년 비정규직의 규모와 특징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2021년 8월 비정규직 규모는 806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만 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1%p 상승한 38.4%이다.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8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11만 3천 명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5만 5천 명 감소했다. 2021년 들어 경기가 회복되고 취업자 수도 증가를 지속해 8월에는 계절조정 취업자 수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20년 2월의 99.6%까지 회복했다.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54만 7천 명 증가했는데 비정규직이 64만 명 증가했다. 정규직은 2020년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어 전년동월대비 9만 4천 명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대폭 증가했다. 2021년 임금근로자 증가는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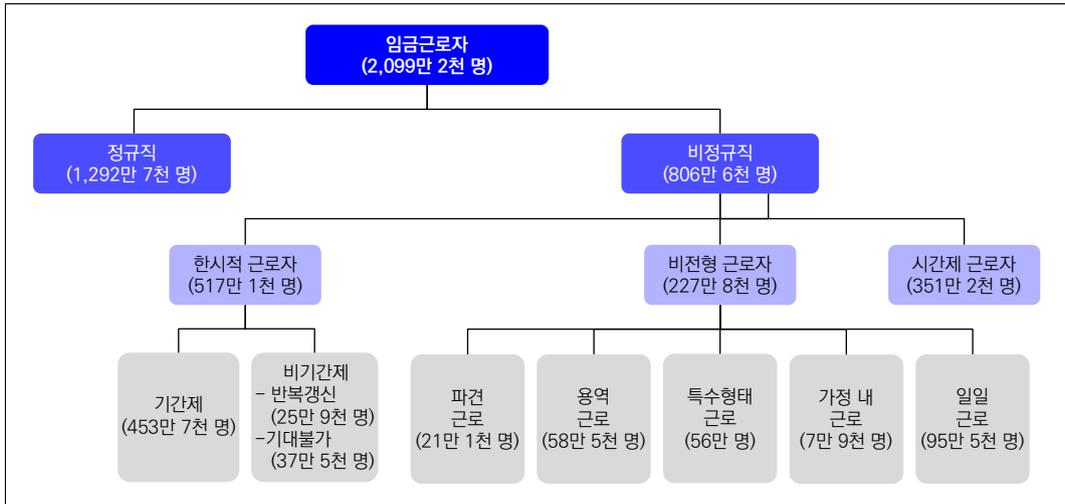
둘째,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다(그림 2 참조). 한시적 근로자는 다음의 세 가지 근로형태를 포함한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한 않았지만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반복갱신 근로자, 현재 하는 업무의 종료, 목시적 또는 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기대불가 근로자이다. 2021년에는 한시적 고용 중 비정규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그림 1]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2] 2021년 8월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구성 및 규모



주 :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는 유형 간 중복 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1년 8월.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 반복갱신 근로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한시적 근로자 내부 구성이 크게 변화했다면, 2021년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한시적 근로자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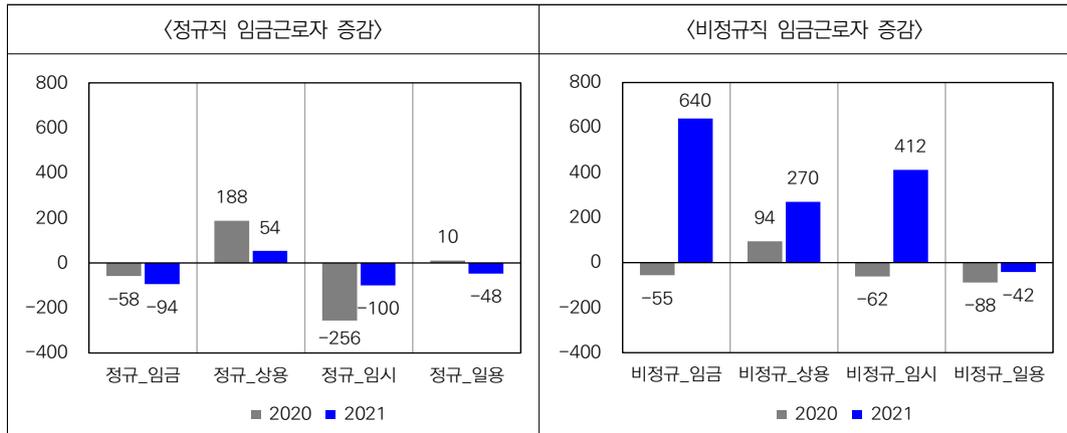
1.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증가

2021년은 임금근로자 고용 회복이 비정규직 중심으로 나타났고 정규직은 감소했다. 한편, 임금근로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취업자 회복이 나타난 3월 이후 임시직뿐만 아니라 상용직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정규직=상용직, 비정규직=임시일용직으로 여겨지기 쉽기 때문에 두 현상이 다소 상반되어 보이지만 종사상 지위에 의한 구분과 정규·비정규 분류는 그 기준이 다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이면 상용직, 1개월 이상~1년 미만이면 임시직,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분류된다.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되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다. 고용형태상으로 정규직이지만 종사상 지위로는 임시·일용직일 수 있고, 비정규직이어도 상용직일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직이며, 파견이나 용역 근로자도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상용직으로 분류된다. [그림 3]에 8월 기준 비정규직 여부별로 각 종사상 지위의 증감이 나타나 있다. 8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은 32만 4천 명, 임시직은 31만 2천 명 증가했다. 증가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은 27만 명이었으며, 비정

규직이면서 임시직인 근로자는 41만 2천 명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정규_상용직 근로자 증가폭은 줄고, 정규_비상용 근로자는 감소했다.

[그림 3] 비정규직 여부별 임금근로자 증감

(단위: 천 명)



주: 전년동월대비 증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1년 비정규직 증가율은 2020년 대비 8.6%로 증가속도가 매우 빨랐다.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이 큰 보건·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의 비정규직 증가율은 13.4%로 전년에 이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민간부문만 보아도 2021년 비정규직 증가율은 7.4%로 높다. 2020년에는 비정규직이 전년동월대비 5만 5천 명 감소했다. 일자리 정책의 영향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증가한 반면 경기 위축으로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 감소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과 급격한 경기위축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인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감소 규모는 정규직 감소 규모의 3배 정도 컸다. 202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20만 7천 명 증가했고,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43만 4천 명 증가했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2021년 민간부문에서는 정규직은 고용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위주로 고용회복이 나타났다.

〈표 1〉은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을 나타낸다. 비정규직은 보건·사회복지업에서 크게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업 비정규직은 증가폭이 확대되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p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업 비정규직 증가는 정부 일자리 정책의 영향이 크다. 증가한 비정규직 22만 8천 명 중 16만 1천 명이 60세 이상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여성 임시직 근로자이다. 2020년에 보건·사회복지업 다음으로 비정규직 증가규모가 컸던 공공행정은 2021

년에는 희망일자리아업이 종료되면서 전년보다 감소했다. 민간부문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증가했고 정보통신업에서도 증가했다. 정보통신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디지털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이다. 정보통신업 비정규직 규모가 전년보다 증가하면서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정보통신업 비정규직은 특히 30~40대에서 전문직 및 사무직을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대부분 상용직이다. 교육서비스업 비정규직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임시직이,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선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상용·임시직이 모두 증가했다.

반면, 민간부문 정규직은 전년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민간부문 정규직 중에서 상용직은 감소했고, 임시직은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민간부문 정규_상용직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에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기존 근로자가 감소했다. 정규_임시직은 2020년에 감소규모가 컸던 도소매, 숙박음식업과 건설, 협회 및 단체, 예술·스포츠 등 산업에서 감소했다.

〈표 1〉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단위: 천명, %)

	비정규직 규모 및 증감					비 중		
	2019. 8. (A)	2020. 8. (B)	2021. 8. (C)	증감 (B)-(A)	증감 (C)-(B)	2019. 8.	2020. 8.	2021. 8.
전 산업	7,481	7,426	8,066	-55	640	100.0	100.0	100.0
제조업	669	601	631	-69	30	8.9	8.1	7.8
건설업	851	859	890	9	31	11.4	11.6	11.0
도소매업	706	722	753	16	31	9.4	9.7	9.3
운수·창고업	217	231	264	15	33	2.9	3.1	3.3
숙박·음식점업	765	694	694	-71	0	10.2	9.3	8.6
정보통신업	129	121	183	-8	62	1.7	1.6	2.3
금융보험업	281	256	303	-25	47	3.8	3.4	3.8
부동산업	196	178	208	-17	30	2.6	2.4	2.6
전문·과학·기술	194	179	206	-15	27	2.6	2.4	2.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업	866	824	890	-42	66	11.6	11.1	11.0
공공행정	373	413	392	40	-22	5.0	5.6	4.9
교육	630	588	673	-41	85	8.4	7.9	8.3
보건·사회복지	978	1,128	1,356	150	228	13.1	15.2	16.8
예술스포츠	195	182	180	-14	-2	2.6	2.4	2.2
협회·단체	246	241	241	-5	0	3.3	3.2	3.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 기간제 근로자 큰 폭 증가

〈표 2〉는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규모를 나타낸다. 2021년 8월 기준 한시적, 비전형,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다. 특히 한시적 근로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한시적 근로는 2020년 8월보다 급격히 증가하여 56만 4천 명 증가했다. 한시적 근로자가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p 상승하여 64.1%에 이른다. 비전형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도 전년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어 각각 20만 5천 명, 26만 명 증가했다.

한시적 근로자의 증가는 기간제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 동월보다 60만 5천 명 증가했고 기간제 근로가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p 증가한 56.3%를 기록했다. 한시적 근로자 중에서 반복갱신 근로자는 2만 1천 명 증가했다. 2020년에는 경기 위축으로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반복갱신 근로자가 36만 9천 명 감소하여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했었다. 2021년 8월 반복갱신 근로자는 소폭 증가에 그쳐 비정규직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수준과 같다. 한편, 기대불가 근로자는 전년보다 감소하고 비정규직 중 비중도 1.2%p 감소했다.

〈표 2〉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규모 및 비중 증감

(단위: 천명, %)

	규모 및 증감					비 중		
	2019. 8. (A)	2020. 8. (B)	2021. 8. (C)	증감 (B)-(A)	증감 (C)-(B)	2019. 8.	2020. 8.	2021. 8.
비정규직	7,481	7,426	8,066	-55	640	100.0	100.0	100.0
① 한시적 근로	4,785	4,608	5,171	-177	564	64.0	62.1	64.1
기간제	3,799	3,933	4,537	133	605	50.8	53.0	56.3
반복갱신	607	238	259	-369	21	8.1	3.2	3.2
기대불가	379	437	375	58	-62	5.1	5.9	4.7
② 비전형 근로	2,045	2,073	2,278	28	205	27.3	27.9	28.2
파견	182	164	211	-18	46	2.4	2.2	2.6
용역	615	552	585	-63	33	8.2	7.4	7.2
특수형태근로	528	498	560	-30	62	7.1	6.7	6.9
가정 내 근로	46	49	79	3	30	0.6	0.7	1.0
일일근로	748	896	955	148	59	10.0	12.1	11.8
③ 기간제 근로	3,156	3,252	3,512	97	260	42.2	43.8	43.5

주: 1) 비정규직 중 각 근로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기간제, 비전형)의 규모와 증감은 유형 간 중복 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3〉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신규 입직자 수 및 평균 근속기간

(단위: 천명, 개월)

	신규 입직자 수(근속기간 1년 이내)					평균 근속기간				
	2019. 8. (A)	2020. 8. (B)	2021. 8. (C)	증감 (B)-(A)	증감 (C)-(B)	2019. 8. (A)	2020. 8. (B)	2021. 8. (C)	증감 (B)-(A)	증감 (C)-(B)
비정규직	4,213	4,168	4,480	-45	312	29.1	28.7	29.0	-0.4	0.3
한시적 근로	2,651	2,464	2,738	-186	274	29.4	29.4	29.2	0.0	-0.2
기간제	2,238	2,105	2,405	-133	300	25.9	29.2	29.4	3.3	0.2
반복갱신	156	52	94	-104	42	59.7	60.7	41.2	1.0	-19.5
기대불가	257	307	239	51	-69	16.1	13.7	17.4	-2.4	3.7
비전형 근로	1,196	1,266	1,382	70	116	30.3	29.2	29.7	-1.1	0.5
파견	77	75	95	-1	19	39.5	38.6	41.9	-0.9	3.3
용역	289	225	229	-65	5	30.1	35.3	35.5	5.2	0.2
특수형태근로	135	134	179	-1	45	66.1	65.8	62.1	-0.3	-3.7
가정 내 근로	28	30	47	2	17	18.8	29.6	25.7	10.8	-3.9
일일근로	736	885	936	148	51	0.8	0.7	1.7	-0.1	1.0
시간제 근로	2,005	2,123	2,279	118	156	20.6	20.7	21.3	0.1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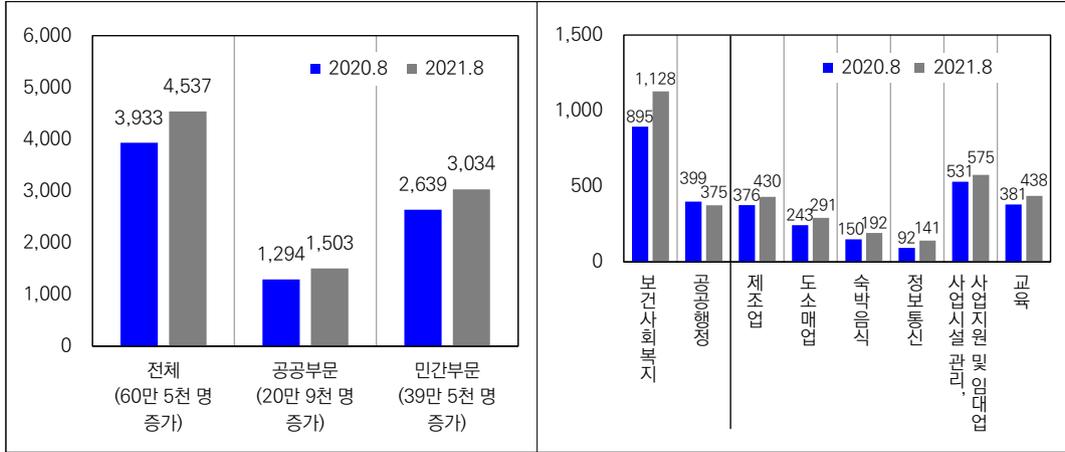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비전형 근로자는 세부 근로형태별로 고르게 증가했다. 2020년에 감소했던 파견, 용역, 특수형태 근로자는 2021년에 모두 증가했고, 일일근로자도 5만 9천 명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전년 동월보다 26만 명 증가했다. 2021년에 시간제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 증가와 관련이 있다. 비정규직의 각 근로형태는 서로 중복이 가능한데, 정부 일자리 사업의 경우 기간제이면서 시간제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간제가 늘면 시간제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표 3〉에 비정규직 근로형태별로 신규 입직자 수와 평균 근속기간이 나와 있다. 〈표 3〉을 통해 비정규직의 규모 증가가 신규로 채용된 비정규직의 증가 때문인지 평균 근속기간의 증가 영향 때문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근속기간이 1년 이내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한다면, 기대불가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형태에서 신규 입직자가 증가했다. 근속기간 1년 이내인 비정규직은 31만 2천 명 증가하여 비정규직 전체 증가분의 절반이 1년 이내에 신규로 취업한 상황이다. 한시적 근로자 중에서 기간제 신규 취업자가 30만 명 증가했고, 비전형 근로자 중에서는 특수형태근로와 일일근로에서 신규 취업자가 각각 4만 5천 명, 5만 1천 명 증가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신규 입직자 수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고 평균 근속기간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한시적 근로자 중 반복갱신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자도 신규 입직자는 증가하고 평균 근속기간은 감소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신규 입직자가 15만 6천 명 증가하고 평균 근속기간도 소폭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 근속기간은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그림 4] 기간제 근로자 산업별 고용 규모와 증감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데, 그림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신규 입직자 수의 증가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는 기간제 근로자의 산업별 고용 규모와 증감을 나타낸다. 기간제 근로자는 60만 5천 명 증가했는데 산업별로 보면 공공부문에서 20만 9천 명, 민간부문에서는 39만 5천 명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업 기간제 근로자는 60세 이상에서 15만 1천 명(임시직 위주), 20~50대에서도 8만 5천 명(상용직 위주) 증가했다. 민간 부문의 기간제 근로자는 제조업, 교육, 도소매,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증가한 민간부문 기간제 근로자 중 임시직이 21만 1천 명, 상용직이 17만 4천 명이다. 민간부문 기간제 임시직은 교육, 도소매, 숙박음식업 위주로 증가했다. 기간제 상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들인데 특히 1년 계약직이 14만 명 증가했다. 1년 계약직 근로자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업, 제조업, 전문·과학, 정보통신업에서 증가했다. 민간부문 기간제 근로자 중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입직자는 18만 5천 명으로 대부분 임시직(17만 9천 명)으로 채용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2021년 8월 비정규직은 규모와 비중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한시적 고용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규모가 급증한 것이 특징이다. 비정규직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크게 증가해 2021년 임금근로자 증가는 민간부문의 비정규 상용·비정규 임시직 중심으로 나타났다. 증가한 비정규직의 절반이 근속기간 1년 이내인 신규 입직자로 기간제 근로자의 신규 취업이 대폭 증가했다. 기간제 근로자도 민간 영역에서 상용·임시직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신규 취업자는 임시직이 대부분이었다. 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는 경기회복에 따라 임시직 형태의 기간제 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Ⅲ.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앞서 2021년 고용회복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2021년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려는 제도적 변화와 정규직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근무제의 활용이 증가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여건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3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임금과 근로시간 : 개선되지 못한 임금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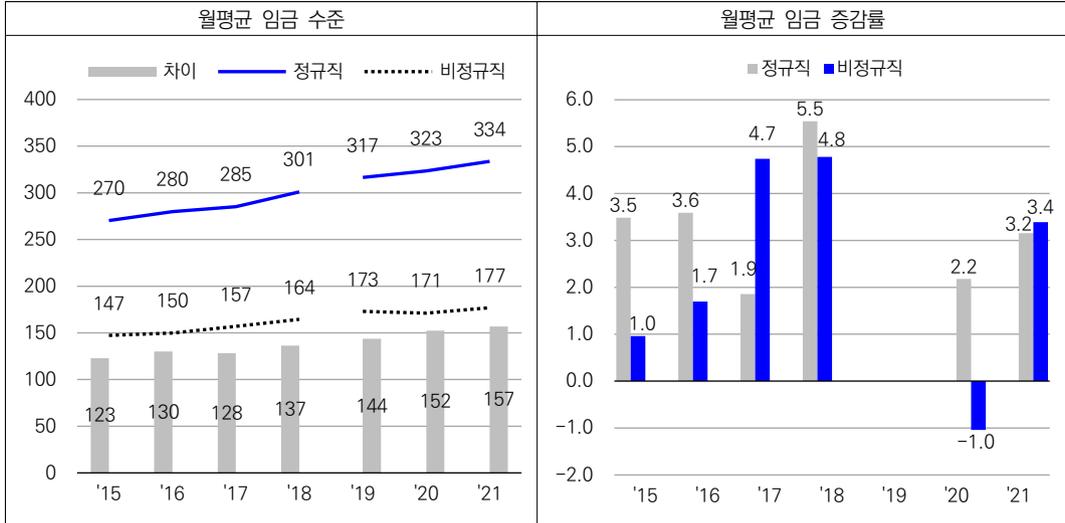
우선 임금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점차 회복됨에 따라 2021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월평균 임금이 증가하였다(그림 5). 정규직의 임금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확대된 3.2%를 기록하여 평균 임금이 334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임금도 2021년에는 3.4% 증가하여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내었지만 2020년에 비정규직 임금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20년보다 5만 원가량 더 벌어진 157만 원을 기록하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상대 임금은 53.0%로 작년(52.9%)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1년의 임금 계층별 근로자 비중과 평균 임금 수준 변화를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표 4). 정규직의 경우 2020년에는 주로 중임금 근로자의 비중 증가와 이들의 평균 임금 상승이 월평균 임금의 증가를 주도했지만 2021년에는 전반적 임금 수준 상승과 더불어 고임금과 중임금 계층의 비중 확대가 전체 평균 임금 증가에 기여하였다. 반면 비정규직 상황은 다르다. 2020년 임금 감소가 임금 수준이 낮은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 증가와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 감소에 기인했다면, 2021년의 임금 상승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증가한 것과 중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이들의 평균 임금이 상승한 영향이었다.

다음으로는 월평균 임금을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살펴본다. <표 5>를 보면 임금근로자의 평소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지만 2020년보다는 감소세가 완화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충격이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근로시간이 더 크게 감소하였지만 2021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근로시간이 소폭 감소하였다. 근로시간을 구간별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2021년의 감소는 주로 53시간

[그림 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수준 및 증감률

(단위 : 만 원, %, 전년동월대비)



주 :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2) 2019년은 조사 방식의 변화로 시계열이 단절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표 4] 근로형태 및 임금 계층별 근로자 비중과 평균 임금의 수준 및 증감

(단위 : %, %p, 만 원, 전년동월대비)

수준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근로자 평균 임금			근로자 비중			근로자 평균 임금		
	저임금	중임금	고임금	저임금	중임금	고임금	저임금	중임금	고임금	저임금	중임금	고임금
2019	6.4	61.4	32.3	125.1	238.8	502.1	48.3	44.8	6.9	82.4	220.3	498.1
2020	5.5	65.4	29.1	121.3	250.1	525.7	48.8	45.3	5.9	80.1	225.9	503.0
2021	4.8	65.7	29.5	130.5	257.8	535.6	48.6	45.5	5.9	83.6	233.9	509.0
증감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근로자 평균 임금			근로자 비중			근로자 평균 임금		
	저임금	중임금	고임금	저임금	중임금	고임금	저임금	중임금	고임금	저임금	중임금	고임금
2020	-0.9	4.0	-3.1	-3.8	11.3	23.6	0.5	0.5	-1.0	-2.3	5.6	4.9
2021	-0.7	0.4	0.3	9.2	7.7	9.9	-0.2	0.2	-0.1	3.5	8.0	6.0

주 : 1) 임금은 월평균 임금을 사용함.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유급 일시휴직자 혹은 3개월 이내에 임금이 발생했던 일시휴직자도 포함됨.
 2)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된 중위 임금의 2/3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뜻함. 중임금 근로자는 중위 임금의 2/3 수준 이상, 3/2 수준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뜻함. 고임금 근로자는 중위 임금의 3/2 수준 이상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뜻함.
 3) 근로자 비중은 각각 전체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서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표 5〉 평균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의 수준 및 증감률

(단위 : 시간, %, %p, 전년동월대비)

근로형태	평균 근로시간(증감률)		2021년 근로시간대별 근로자 비중(증감)			
	2020	2021	1~14시간	15~39시간	40~52시간	53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39.1(-1.8)	38.7(-1.0)	5.2(0.3)	15.1(0.8)	75.1(- 0.2)	4.7(-0.9)
정규직	42.7(-1.4)	42.5(-0.5)	0.0(0.0)	2.8(0.2)	91.9(0.6)	5.3(-0.8)
비정규직	32.7(-2.7)	32.6(-0.3)	13.4(0.0)	34.8(0.0)	48.0(0.9)	3.8(-1.0)

주 : 1) 근로시간은 주된 직장에서의 평소 주당 근로시간임. 평소 주당 근로시간은 주된 직장(일)에 고용될 당시 평소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주당 평균 근무일 수와 일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조사됨.
 2) 평소 근로시간은 조사기간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고용 시 정해진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일시휴직에 영향받지 않음.
 3) 괄호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줄고 40~52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한 영향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평소 1~14시간이나 15~3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각각 전체 비정규직의 13.4%, 34.8%로 2020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 단시간 근로자 위주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비정규직 전체로 보면 고용 회복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코로나 19의 장기화가 추가적인 근로시간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정규직을 세부형태별로 보면 근로시간의 변동에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근로형태에서는 근로시간이 1% 내외로 감소하거나 증가했지만, 한시적 근로자 중 반복갱신 근로자의 경우는 2021년에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여 근로시간 감소율이 작년(-1.9%)보다 3배 정도 더 컸다. 반면 한시적 근로자 중 기대불가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 중 가정 내 근로자는 올해 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기대불가 근로자는 2020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던 40시간 미만 근로자가 2021년에 감소하면서 전일제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근로시간이 전년 동월에 비해 3.3% 증가하였다. 가정 내 근로자는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정에서 전일제로 일하는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근로시간이 6.0% 증가하여 평균 30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정규직은 2021년에 근로시간에 큰 변동이 없었지만 기대불가 같은 일시적 근로자를 중심으로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근로시간의 변동이 작았던 만큼 월평균 임금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임금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표 6 참조).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3.6% 증가하여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3%대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비정규직도 2021년에는 증가세가 확대되어 3.2% 증가하였는데 2020년에 시간당 임금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리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준의 증가세는 아니다. 2021년 최저임금 적용률이 높은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폭이 2021년에 1.5%로 매우 낮았던 것이 비정규직

임금 상승폭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의 하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¹⁾는 2019년 68.9→2020년 67.0→2021년 66.7로 좁혀지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악영향이 여전히 비정규직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평균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의 수준 및 증감률

(단위: 만 원, %, %p, 전년동월대비)

근로형태	시간당 임금		저임금 근로자 비중	
	2020	2021	2020	2021
임금근로자	15.6(2.3)	16.0(2.7)	17.4(1.1)	16.0(- 1.4)
정규직	17.8(3.1)	18.4(3.6)	8.1(0.2)	6.2(- 1.9)
비정규직	11.9(0.3)	12.3(3.2)	33.7(2.8)	31.8(- 1.9)
한시적 근로	12.2(2.4)	12.4(1.7)	29.5(1.6)	29.5(0.0)
기간제	12.4(4.2)	12.6(1.8)	28.6(0.1)	28.5(- 0.1)
반복갱신	13.0(-5.8)	11.2(-13.3)	18.8(2.1)	33.6(14.8)
기대불가	10.7(7.9)	11.6(8.7)	43.2(3.3)	39.2(- 4.0)
비전형 근로	11.3(0.4)	12.1(7.4)	34.6(5.3)	30.8(- 3.8)
파견	12.6(5.9)	13.0(3.0)	19.8(-2.5)	24.6(4.8)
용역	10.8(6.8)	11.3(4.4)	27.5(-1.5)	24.9(- 2.6)
특수형태근로	12.7(-2.7)	13.3(4.4)	35.9(9.0)	31.5(- 4.4)
가정 내 근로	9.9(18.1)	12.1(21.4)	59.6(5.2)	43.4(-16.2)
일일근로	10.5(-1.9)	11.7(11.0)	41.2(8.8)	35.1(- 6.1)
시간제 근로	10.8(-2.3)	10.9(0.4)	48.5(1.2)	47.5(- 1.0)

- 주: 1) 근로시간은 주된 직장에서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주된 직장(일)에 고용될 당시 평균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주당 평균 근무일 수와 일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조사됨.
- 2)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 / (평균 1주당 근로시간 * 30.4 / 7).
- 3) 월평균 임금은 최근 주된 직장에서의 세금 공제 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유급 일시휴직자 혹은 3개월 이내에 임금이 발생했던 일시휴직자도 포함됨.
- 4) 괄호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비정규직은 근로형태별로 시간당 임금의 변화 양상이 사뭇 다르다. 비정규직 유형 중 반복갱신이 유일하게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였는데, 반복갱신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불안정한 근로형태이기 때문에 임금의 변화도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대불가나 비전형 근로자 등 여타 비정규직 근로형태에서는 임금이 상승하였다. 기대불가는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8% 정도의 임금상승률이 이어져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가까워졌다. 또한 파견·용역 역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였고 2020년 주춤했던 특수형태근

1)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나타냄.

로자도 2021년에는 평균 임금이 상승하였다. 정규직에 가까운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특수형태 근로자는 2021년에 임금이 상승하면서 비정규직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되었다. 또한 비전형 근로자 중 가정 내 근로와 일일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가정 내 근로자의 경우는 주로 고졸 이하에서 근로자 수와 임금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2021년에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16.2%p 감소하였다. 한편 최근 유입된 대졸 이상 학력의 가정 내 근로자가 받는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대졸자의 임금이 매우 근접한 94.5% 수준으로 학력에 따른 근로여건의 차이가 큰 편이다. 가정 내 근로자가 일하는 업종을 보면, 대졸 미만의 경우 2021년에 도·소매업 및 보건복지를 중심으로 임금이 증가하였고 대졸 이상 그룹에선 도·소매업,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및 교육서비스 등에서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임금이 정체되었던 일일근로자도 2021년에는 시간당 임금이 전년동월대비 11% 증가하여 저임금 근로자 비중 역시 크게 감소하였다. 일일근로자의 임금 상승은 주로 건설업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건설업은 기업 업황도 올해 크게 개선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여 보면 2021년 비정규직은 근로시간대별로 고르게 증가하여 전체 평균 근로시간도 정규직과 비슷하게 큰 변동이 없었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2020년보다 개선이 되었지만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었으며, 근로형태별로는 한시적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던 반면 비전형 근로자의 임금은 크게 증가하여 이들이 비정규직 임금 상승을 견인하였다.

2. 고용보험 : 특수형태근로자의 가입 증가

2021년은 코로나19에 따라 실업 위기에 노출된 비정규직의 고용안전망 개선을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2020년 12월 10일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특수형태근로자도 일부 직종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²⁾ 그 효과를 [그림 6]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2021년 특수형태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은 2020년 7.6%에서 2021년 64.5%로 유례없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제도의 시행이 7월이고 부가조사 기간이 8월 중순인 점을 고려하면 1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매우 빠르게 가입자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체 비정규직 및 비전형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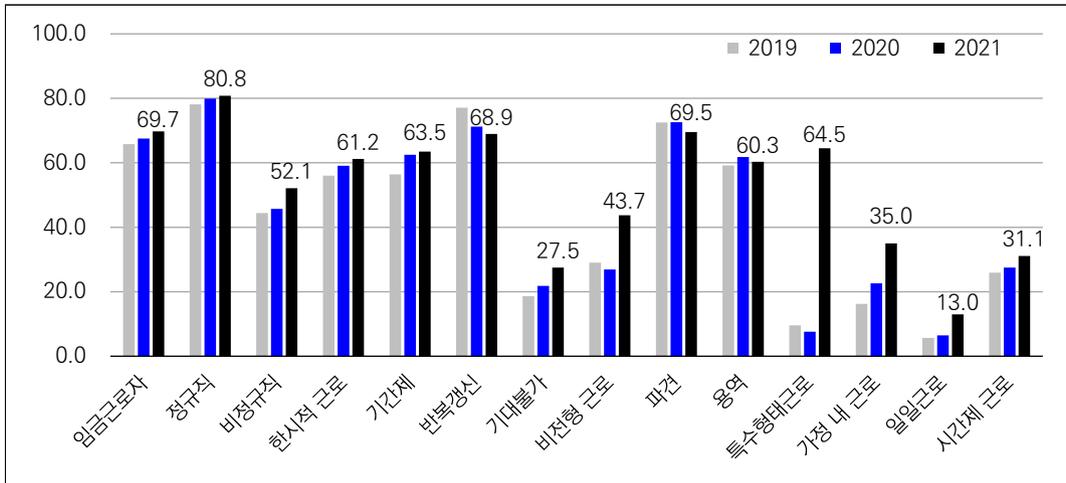
특수형태근로자와 더불어 비전형 근로자 중 가정 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도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로 가정 내 근로자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근로조건이 양호한 근로자가 유입된

2) 2021년 7월 1일 시행 적용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어 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이며 2022년 1월부터는 킥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가 포함됨.

데 기인한 것이다. 또한 2020년까지 매우 낮은 수준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이던 일일근로자도 2021년에는 가입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일일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은 2020년 6.5%에서 2021년 13.0%로 두 배 성장하였는데, 주로 건설업, 운수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임대업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일일근로자에서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가 2020~2021년 소폭의 증가를 이어나 반면 반복갱신은 장기근속 근로자가 대거 이탈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도 코로나19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기대불가의 경우는 반대로 매우 낮은 가입률을 보이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림 6] 근로형태별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

(단위: %)



주: 표시된 수치는 2021년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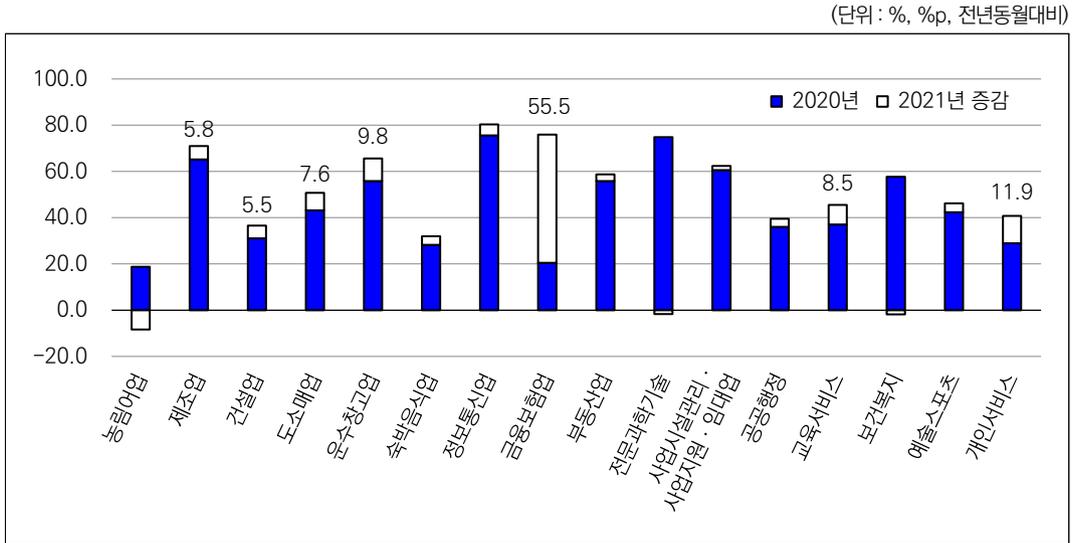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는 산업별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그림 7 참조). 올해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는 특수형태근로자가 많이 포진한 금융·보험업(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에서 급증하였고 교육서비스업(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방과후강사), 운수·창고업(택배기사, 화물차주), 개인서비스업(대여제품방문점검원), 도·소매업(방문판매원)에서도 어느 정도 증가하였다. 반면 예술인고용보험이 시행되었음에도 비정규직 예술·스포츠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폭은 그리 큰 편이 아니었다. 농림어업은 2021년에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고용보험 비적용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요약하면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은 특수형태근로자의 가입 의무화로 2021년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정규직

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비정규직 산업별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 및 증감



주 : 표시된 수치는 2021년 증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3. 유연근무제 :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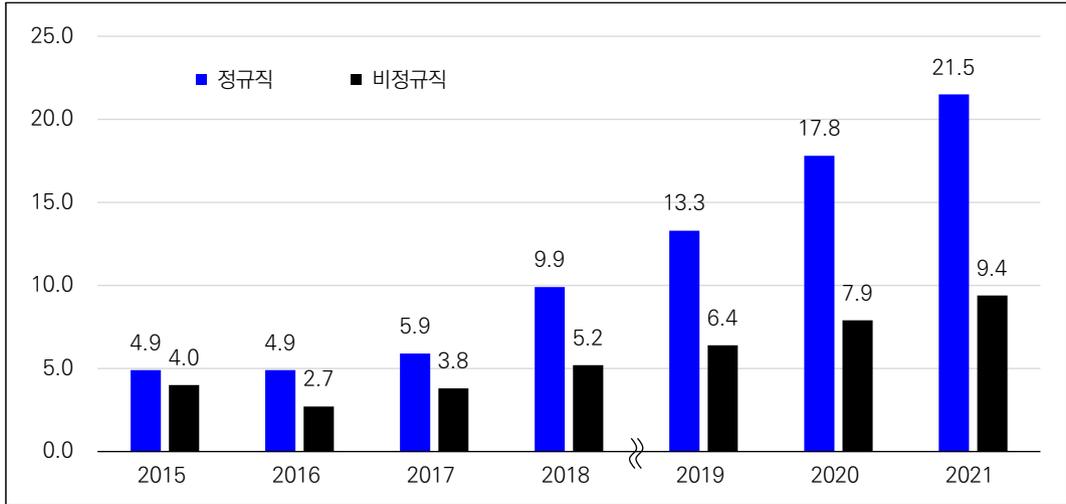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임금근로자도 2021년에 더 증가하였다. [그림 8]을 보면 2021년 정규직 근로자의 21.5%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전년동월 대비 3.7%p(약 46만 명) 더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활용자는 2021년 9.4%로 작년보다 1.5%p(약 18만 명) 증가하여 정규직에서의 활용도 및 증가세가 비정규직보다 더 크고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 근로일정, 근로장소를 조정하는 형태가 있으며 직업과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유연근무제의 활용 형태 중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단연 재택(원격) 근무제이다(그림 9 참조). 재택 근무제의 활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증가하여 두 근로형태에서 동일하게 주된 활용 형태로 성장하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유연근무의 활용이 적기 때문에 재택근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는 더욱 증가하여 2020년 1.8%p였던 차이는 2021년 4.6%p로 확대되었다. 재택 외 활용 형태는 정규

직과 비정규직 모두 2020년보다 소폭 확대되는데 그쳐서 2021년 유연근무제 활용자의 확대는 주로 재택근무의 확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중 유연근로제 활용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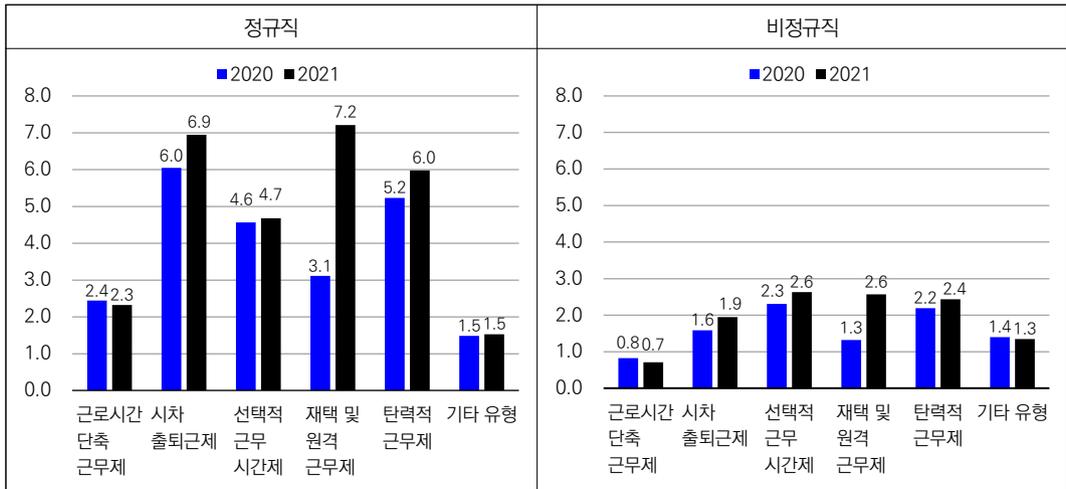
(단위 : %)



주 : 각각 전체 정규직과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활용자 비중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그림 9]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연근로제 활용 형태별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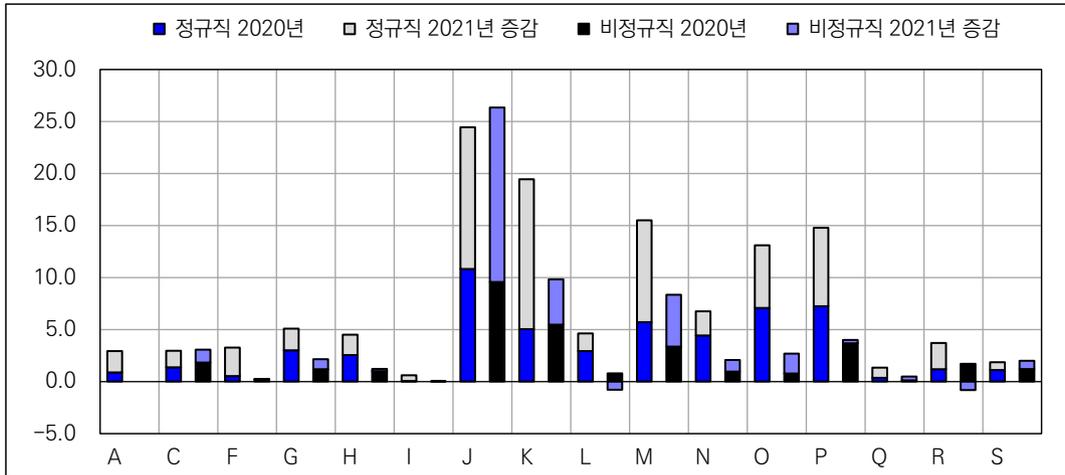


주 : 1) 각각 전체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분모로 함.
 2) 유연근무제 활용 형태는 복수 응답 기준으로 그 합이 전체 활용자 비중과 일치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재택 및 원격근무제의 정규직-비정규직 활용 차이는 업종에 따라 다르다(그림 10 참조). 대체로 정규직에서의 활용 비중이 더 높지만 정보통신업은 비정규직에서 재택 활용자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하여 2021년 비정규직 활용자 비중이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높았다. 정보통신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관리 등 컴퓨터를 활용하는 업종이 주로 포함되어 있고 비정규직 또한 전문가 및 사무직 비중이 높아 비정규직도 재택근무를 시행하기 용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2020년까지는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했던 금융·보험업과 전문·과학·기술업은 2021년에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금융·보험업 정규직은 사무직의 비중이 높지만 비정규직 금융·보험업 종사자는 주로 보험관련 판매 종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전체 유연근무제의 활용도는 유사한 수준이나 재택근무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도 재택근무 활용 차이가 벌어졌는데, 이 업종은 비정규직의 재택근무 활용이 2020년에도 낮은 편이었고 2021년에도 재택근무 활용자 비중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으면서 2021년 6~7%p 증가한 정규직과의 차이가 더 커졌다. 공공행정의 경우는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단순 노무직에 속해 있어 재택근무를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교육서비스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문직 및 사무직 비중이 정규직과 비교하여 크게 낮지 않음에도 재택근무 활용도 차이가 커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

[그림 10] 정규직과 비정규직 산업별 재택 및 원격근무제 활용자 비중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주 : 1) 각각 산업별 전체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분모로 함.
 2) 재택 및 원격근무제 활용자는 복수 응답 기준임.
 3) A=농림어업, C=제조업, F=건설업, G=도·소매업, H=운수·창고업, I=숙박 및 음식점업, J=정보통신업, K=금융·보험업, L=부동산업, M=전문·과학·기술업, N=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O=공공행정, P=교육서비스, Q=보건·사회복지, R=예술·스포츠, S=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라서 재택근무의 활용 측면에서 보면 비정규직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2021년 8월 실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했으며, 증가한 비정규직의 절반 가까이가 1년 이내에 신규로 취업한 비정규직이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한시적 근로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급증했다. 신규로 취업한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인데, 특히 민간 부문의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형태로 신규 채용되었다. 셋째, 2021년 비정규직 근로조건은 큰 폭의 개선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2020년보다는 나아지는 모습이였다. 우선 비정규직의 임금이 증가하였고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 활용자도 증가하였다. 다만 임금이 2020년에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1년 임금은 그리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었으며 재택근무의 정착도 정규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급증하였고 비정규직의 증가가 단시간 위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KLI**